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7년 1월 둘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식약처, 중국산 화장품 반송 관련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불합격은 사드 탓 아닌 우리 탓"... 식약처의 '용기' [조선일보]

협회, 정부지원 해외박람회 4곳 국가관 참가 [뷰티누리]

〈해외화장품시장동향〉

새해 맞아 중국 수입화장품 잇따른 가격인하 열풍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법령 정보 14

협회 업무추진현황 16

행사 소식 23

회원사 뉴스 27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식약처, 중국산 화장품 반송 관련 참고자료 ('17.1.1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과정에서 국내 반송조치된 것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품질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향후 중국으로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중국 규제 관련 교육(위생 허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내 화장품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링크:

<http://www.mfds.go.kr/index.do?mid=676&pageNo=1&seq=35202&sitecode=1&cmd=v>

'中 수입금지' 국산 화장품, “수출 이상無” ('17.1.13)

- 지난해 중국 정부로부터 수입 불허 판정을 받은 국내 화장품업체들이 현재는 정상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 불허 판정을 내린 화장품 19개의 제조사인 이아소, 애경, CJ라이온 등은 중국으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임

- 관련링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111000190>

"화장품 불합격은 사드 탓 아닌 우리 탓"... 식약처의 '용기' ('17.1.13)

- 지난 11일 '한반도 사드 배치 갈등 탓에 한국 화장품 19개 제품이 중국에서 무더기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음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소용량(10g 또는 10mL)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 포장에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가 의무화됨

- 관련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3/2017011300253.html

韓中 갈등 고조로 화장품 업계 '울상' ('17.1.10)

- 중국이 최근 한국산 화장품 수입을 무더기로 불허해 국내 화장품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화장품 관련 기업의 주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후 폭락한 것에 비춰 봤을 때 한중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내 화장품 업계의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0/0200000000AKR20170110149551030.HTML?input=1195m>

中 환구시보 "사드 배치하면 한국 화장품 불매" 경고('17.1.7)

-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국 화장품 불매 운동 등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7일(현지 시각) '한국이 사드로 화를 자초한다'는 제목의 사평(社評)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앞잡이가 되려 한다면 이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음

- 관련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7/2017010700651.html

영국, 오가닉·내추럴 화장품 인증제도 '버전업'('17.1.5)

- 영국 토양협회가 BDIH, 코스메비오(Cosmebio), 에코서트(Ecocert) 및 ICEA 등 유럽 각국의 4개 내추럴·오가닉 화장품 관련단체들과 공동으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오가닉 화장품 기준인 'COSMOS' 인증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인증을 원하는 내추럴 및 오가닉 신제품들은 'COSMOS' 허가를 취득해야 하게 됐으며, 영국 토양협회는 이와 관련해 'COSMOS 오가닉'과 'COSMOS 내추럴' 등 2개의 새로운 로고를 제정했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326/cat/10/cat2/10400/page/1>

"수출 출구전략, 유럽에서 찾아라"('17.1.9)

-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율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전략이 시급함
-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럽화장품 규정(Cosmetics Regulation 1223/2009)의 준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초 유럽화장품 인증(CPNP Notification)을 위한 책임대리인(RP)·제품 정보파일(PIF)·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CPSR) 등의 사항들이 만족돼야 함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수출-출구전략-유럽에서-찾아라/>

내가 제일 잘나가...2016년 유통채널별 베스트 화장품은?('17.1.10)

- 2016년 소비자를 사로잡은 화장품은 무엇일까. 헬스&뷰티 스토어, 온라인, 면세점 등 구매처는 다르지만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화장품 브랜드는 대체적으로 비슷했음
- 2016년 한해동안 소비자에게 사랑받은 화장품은 헬스&뷰티스토어,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유통채널 별로 나눠 살펴봤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내가-제일-잘나가-2016년-유통채널별-베스트-화장품은/>

협회, 정부지원 해외박람회 4곳 국가관 참가 ('17.1.10)

-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올해에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 화장품전시회에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관 형태로 참가함
- 전시회명과 개최도시를 살펴보면 인코스메틱스 글로벌(인코스메틱스 유럽; 4월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화장품전시회(5월), 중국 광저우 화장품전시회(9월), 홍콩화장품전시회(11월) 등임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386/cat/10/page/1>

2017 화장품 키워드 'CROSSing' ('17.1.2)

- 국내 화장품산업은 매년 성장세를 거듭해왔으며, 아직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됨
- 2015년 중국에서의 한국산 화장품 열풍이 국내 화장품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던 것처럼 지난해에도 해외시장에서의 선전은 화장품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음

- 관련링크:

http://www.cmn.co.kr/sub/news/news_view.asp?news_idx=21631

2017 화장품 키워드 CROSSing - China Risk, China Risk 관리에 화장품 미래 좌우된다('17.1.2)

- 2017년 화장품산업의 흥망성쇠는 현실화된 중국(China) 위기(Risk) 관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수년째 누려온 중국 특수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느냐가 산업 성장세 유지의 관건임

- 2017년, 중국 위기(China Risk)를 우리 강점(K-beauty advantage)으로 얼마나 적절하게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 화장품산업의 위상이 결정될 것임

- 관련링크:

http://www.cmn.co.kr/sub/news/news_view.asp?news_idx=21632

CEO가 전망하는 2017 화장품 시장 ('17.1.9)

- 2017년 화장품 산업은 생산 부문에서 전년보다 10.4% 늘어난 13조4천억원, 수출 부문은 24.5% 증가한 44억3천만 달러(약 5조3,133억원), 매출 성장률 12.5% 등을 기록하며 타 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음
- 본지가 매년 초 진행하는 CEO 대상 신년 화장품 시장 전망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 중 국내 화장품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CEO는 과반을 넘지 못함

- 관련링크:

http://www.cmn.co.kr/sub/news/news_view.asp?news_idx=21713

○ 해외화장품 시장 동향

새해 맞아 중국 수입화장품 잇따른 가격인하 열풍

- 에스티로더와 아모레퍼시픽의 잇따른 가격인하 -

- 작년 중국 소비세 조절 영향 미친 것 -

□ 배경

- 2015년 6~7월 중국 수입화장품 가격인하 열풍에 이어 2017년 초 또 한번의 가격인하 열풍이 불고 있음.
- 2017년 신정기간, 미국 에스티로더와 한국 아모레퍼시픽은 2017년부터 화장품 중국 소매가격을 인하해 중국 수입단계 소비세 조정에 대응한다고 발표함.

□ 브랜드별 가격인하 현황

○ 아모레퍼시픽

- 한국 최대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중국은 중국 정부의 ‘화장품 수입단계 소비세 조정에 관한 공지’에 맞춰 2017년 1월 15일부터 라네즈,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설화수 4개 브랜드 327개 제품의 중국 판매가격을 3%에서 30% 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소매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힌 주요 제품은 아래와 같음.

브랜드명	제품 사진	제품명	가격 인하율
라네즈		워터수프림 프라이머 베이스 (水漾隔離乳)	9%

브랜드명	제품 사진	제품명	가격 인하율
이니스프리		에코 라스팅 아이라이너 (生机持久眼线液)	20%
		에코 플랫 아이브로우 펜슬 (生机三角形自动眉笔)	10%
		크림 멜로우 립스틱 (淇淋蜜柔唇膏)	8%
에뛰드하우스		디어달링 젤 틴트 (小甜心透嫩唇蜜)	30%
		컬러 마이 브로우 (清纯自然染眉膏)	13%
		플레이 네일 (甜心俏美甲油)	11%
설화수		채담 스무딩 팩트 (采淡柔滑粉饼)	5%

자료원: 每日经济新闻, KOTRA 청다오 무역관 정리

○ ESTEE LAUDER

- ESTEE LAUDER는 2017년 1월 5일부터 산하 브랜드인 에스티로더

(ESTEE LAUDER), 클리닉(CLINIQUE), 맥(MAC), 바비브라운(BOBBI BROWN), 조말론(JOMALONE), 톰 포드(Tom Ford)와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등의 일부 색조화장품 및 향수 제품의 중국 판매 권장 소비자가격을 인하함.

- ESTEE LAUDER의 이번 가격조정 대상품목은 300개 이상임.

중국 소매가격 인하 주요 제품

브랜드명	제품 사진	제품명	가격인하율
에스티로더 (ESTEE LAUDER)		울트라 래디언스 파운데이션 (白金级奢宠臻采粉底液)	7~10%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릴리언스 파운데이션 (沁水粉底液)	
클리닉 (CLINIQUE)		비욘드 퍼펙팅 파운데이션 컨실러 (持久遮瑕粉底液)	16%
맥 (MAC)		스튜디오 픽스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定制无瑕粉底液)	18%
바비브라운 (BOBBI BROWN)		스킨파운데이션 (舒盈平衡粉底露)	8%
		브라우 펜슬 (行云眉粉笔)	12%

자료원: 证券日报, KOTRA 칭다오 무역관 정리

- 2017년 1월 4일, 로레알도 관련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함. 가격 인하 범위에 포함되는 브랜드는 랑콤, 에르메스, 입생로랑 등이 있고, 이번 가격 조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힘. 로레알은 브랜드마다 가격 조정 범위가 다르다고 밝혔으며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음.
- 일본 시세이도와 한국의 미샤는 아직까지 가격인하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가격 인하 원인

- 사실상 2015년 중국 화장품 산업에서 이미 한 차례 집단적 가격인하가 있었음. 2015년 6월 1일부터 중국은 의류, 신발, 피부케어 제품, 기저귀 등 일용 소비재의 수입관세를 모두 낮췄고, 그 중 피부케어 제품의 수입관세는 5%에서 2%까지 조정함. 이후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모두 잇따라 가격인하를 발표함.
- 2016년 9월 30일 중국 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10월 1일부터 일반 화장품 소비세를 폐지하고, 과세 대상을 '고급화장품'으로 한정했으며, 세율은 기존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함. 소비세 징수 범위에 속하는 화장품은 고급 미용화장품, 고급 피부케어 화장품 및 세트 화장품 등임.
 - 아모레퍼시픽 중국 측은 그 외 브랜드 제품의 가격인하 미실행에 대해 산하 브랜드인 마몽드를 예로 들어, 해당 브랜드의 모든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돼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힘.
-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 조정
 -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와 해외직구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현재 단계에서 화장품 가격이 나날이 투명해지고 있어 해외 화장품 기업이 중국 소매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함.
 - 대부분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의 국내외 소매가격 차이는 약 50%에 달함.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해외쇼핑, 해외직구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로 인해 중국 내수소비는 해외에 분산되고 있음. 해외 화장품 기업은 이번 중국의 세수 조정을 기회로 삼아 중국 시장 전략을 재조정해 더 많은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음.

□ 시사점

○ 중국 현지 브랜드에 충격 예상

- 중국은 세계 화장품 브랜드 경쟁에 중요한 거대시장임. 2015년 중국 화장품 소매가격의 증가는 약 10%이며, 전통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가격 증가는 모두 5% 이하임. 이에 따라 많은 수입 브랜드가 모두 중국 시장의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현지 브랜드의 성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일반 대중브랜드의 판매량 점유율이 대부분을 차지함. 일본의 어느 전문가는 "이번 수입브랜드의 가격인하로 인해 로레알, 에스티로더보다 가격이 비교적 낮은 편인 한국 화장품의 가격인하가 중국 현지 브랜드에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아모레퍼시픽의 최대 가격인하율은 30%에 달하며, 로레알 등 브랜드에 비해 가격인하 공간이 한정적인 상황임에도 사상 최대 가격인하를 단행함.

○ 중국 브랜드 연구소 주단펑(朱丹蓬)연구원은 과거 몇 년간 세계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고급 화장품 브랜드 판매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과 소비업그레이드 현상으로 고급 화장품의 기존의 개인적 소비는 현재 대규모, 집단적 소비로 전환되고 있다고 함. 비록 가격인하가 기업에게 제품별 이익률을 감소시킬지 몰라도 규모의 경제 효과로 수익성 증대에 분명한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우억(优亿) 화장품 구매 서비스 플랫폼 백운호(白云虎) 창시자는 이번 경쟁은 브랜드 간 경쟁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국가 간 판매 경쟁이라고 밝힘. 가격인하는 한 기업 내 제품의 국가 간 가격차이를 완화시켜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형평성을 가져다주며,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번 많은 브랜드의 가격 인하는 주로 색조화장품에 집중돼 있음. 업계 인사에 따르면, 관련 세금을 제외한 후 약 80%의 이익률을 기록하는 색조화장품은 상당한 가격인하 공간을 보유하며, 화장품 소비세 조정 이후에도 색조화장품 시장에서 또 한 번 가격인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자료원: 每日经济新闻, 证券日报, 网易, 中国经济网 및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 1. 10.〉

법령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법령 정보

베타인살리실레이트(Betaine Salicylate) 사용 시 원료 관리 주의 당부 (2017.01.06.)

-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베타인살리실레이트(Betaine Salicylate)와 관련하여 동 성분 사용 시 제품에서 살리실산*이 해리되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원료 관리에 주의가 필요함.
 -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 살균보존제로 허가

원료명	사용한도	비고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다만, 샴푸는 제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혼합물’ 관련 사용규정 준수 협조 요청(2017.01.11.)

- 화장품의 살균보존제로 사용이 허가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혼합물’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그 밖의 제품에 사용금지)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성분이 함유된 계면활성제 등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최종제품에서의 사용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기타 화장품 원료에 대하여도 첨가제 함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사용하는 등 각 사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제조·판매 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총리령 제1357호, 2016.01.12.)

- 기능성화장품의 품목이 확대됨.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 제외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 제외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탄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얇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할랄 인증 등의 표시·광고가 허용됨.
- 외국 상호·상표 표시·광고 상 중복규제가 개선됨.
- 행정처분의 기준이 개선됨.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하위 규정에서의 심사 절차, 보고 사항, 시험 자료 등에 대한 질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2017년 1월 20일(금)까지 우리협회(jj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2017.01.12.)

-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미세플라스틱 신설
 - 미세플라스틱(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1. 화장품의 유형

가. 영·유아용 제품류,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4) 영·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 5) 영·유아용 목욕용 제품

나. 목욕용 제품류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아. 두발용 제품류, 1) 헤어 컨디셔너, 8) 샴푸, 린스, 11)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차. 2) 남성용 탈컴(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4) 세이빙 크림, 5) 세이빙 폼, 6)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카. 6) 팩, 마스크(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시행일: 2017년 7월 1일부터.

-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해당 제품은 고시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음.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업무추진현황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예정 행사

○ 제68회 정기총회 일정 안내

◆ 우리협회는 제68회 정기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7. 2. 8 (수) 오전 11시

나.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사파이어 볼룸

○ 2017년 화장품관련 디렉토리 (국문, 영문) 수재 신청 안내

◆ 우리 협회에서는 화장품관련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외 바이어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수출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각 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2002년부터 매년 화장품관련 디렉토리를 발행해 오고 있다.

◆ 내년에도 『2017 화장품관련 디렉토리』(국문/영문)를 발행할 계획이며, **2017.1. 20(금)** 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각 기관별로 해당 유형의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 작성하여 메일로 회신(jacklbs@kcia.or.kr, Tel : 02-785-7985)하면 된다.

※ 본 디렉토리 수재 신청은 무료이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기관을 대상으로 추후 발행된 책을 무료로 송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디렉토리 영문판은 해외 바이어에게 배포될 예정이오니 영문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https://www.kcia.or.kr/ Document/News/NEWS_020V.asp?dnSn=2130&table name=B_NEWS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안내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내 [1~6월 수집정보 : 7월 중 보고, 7~12월 수집정보 : 다음 해 1월 중 보고]에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 화장품 유해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하며,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보고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바이오 생약 정보) → 화장품 정보 →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창구 개설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안전성 정기 보고 사용자 매뉴얼’을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화장품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제조판매업자는 2016년도 한 해 동안 제조판매한 화장품의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2017.2.28(토)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 제조판매업자가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보고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 실적보고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실적보고 ➡ 실적보고하러 가기

※ 실적보고 자료 작성전에 ‘실적보고 관련 공지’에 게시된 자료(실적보고 작성 요령 등)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 시스템 리뉴얼중인 관계로 2017. 1. 20(금) 이후 실적보고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원료목록 보고시 표준화된 명칭으로 보고 안내

- ◆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은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7년 2월 28일까지 제조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특히, 화장품 원료목록은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를 표준화된 원료명칭으로 보고토록 하여 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원료목록 보고시 반드시 표준화된 원료명칭으로만 보고토록 인터넷보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 따라서, 2017년부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원료목록 보고시 원료명이 표준화된 명칭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표준화 원료 명칭을 보내드리오니 사전에 점검후 보고될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선된 원료목록 보고 시스템에서는 원료 목록 보고시 표준화된 명칭이 아닐 경우 실적보고 시스템에 Upload 할수 없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로 하되, 다만 다음 성분은 제외하고 제출

-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않은 성분
-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나. 배합금지성분 화장품 법령 준수 확인

다. 성분명은 표준화된 명칭으로 용기등의 전성분 명칭과 동일하게 작성

※ 실적보고 시스템 리뉴얼중인 관계로 **2017. 1. 20(금)** 이후 실적보고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목록 보고시, 첨부파일의 표준명 1 또는 표준명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보고 시스템에 Upload 하실 수 없습니다.

◦ 2017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1월) 안내

- ◆ 우리 협회는 「화장품법」전면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0호)에 따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제1호, 2013. 04.29.)로 지정되어,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1월)」을 실시한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7년 01월 24일(화), 10:00-17:30

나.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다. 내 용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장품 제조·수입 관련 문서관리,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등

※ 교육접수는 협회 홈페이지 교육마당(www.kcia.or.kr)에서 진행되며, 2017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 전 일정은 2월 초 즈음 협회 홈페이지 교육마당(www.kcia.or.kr)에서 공지할 예정이며, 협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접수 또한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지니 협회 홈페이지 교육마당(www.kcia.or.kr)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 2017년 국가관 참가 해외전시회 일정 안내

◆ 2017년도 우리협회에서 국가관으로 참가하는 해외 화장품 전시회일정입니다.

전시회명	개최일자	국가(도시)	지원기관	모집
인코스메틱유럽2017(in-cosmetics Global 2017)	2017.04.04~04.06	영국(런던)	중소기업청	모집중
중국상해화장품미용전시회	2017.05.23~05.25	중국(상해)	중소기업청	모집완료
중국광주화장품미용전시회(추계)	2017.09.04~09.06	중국(광주)	중소기업청	5월중
홍콩화장품미용전시회(cosmoprof Asia 2017)	2017.11.15~11.17	홍콩	KOTRA	4월중

* 해외전시회 참가 관련 문의 : 임종근 부장(Tel 02-785-3898, e-mail : rootim @kcia.or.kr)

*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추진 현황

○ 인코스메틱스글로벌2017(인코스메틱 유럽) 참가신청 안내

- ◆ 우리협회는 화장품 산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려 화장품 수출을 진작코자 정부의 지원으로 인코스메틱스글로벌2017(4.4~4.6)전시회에 한국관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 이에 전시회 참가할 회사를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화장품 원료사는 붙임양식에 의거 오는 1월 20일까지 협회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참가신청 : 붙임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 (FAX 02-782-6659, e-mail : rootim@kcia.or.kr)
- 나. 신청기간 : 2017. 1. 20.(금)까지
- 다. 신청금 납입 : 3,000,000원(신청규모와 관계없음)
- 라. 계좌번호 : 816937-04-010981(국민은행)(예금주 : (사)대한화장품협회)
- 마. 참가 신청규모 : 9㎡, 13.5㎡(추첨 결정)
- ※ 신청금은 참가사 선정에서 탈락시 환불되며, 참가사 확정된 후 참가 포기시, 환불 불가합니다.(신청금은 추후 참가비 포함됨)
- 바. 담당자 : 임종근 부장 (e-mail : rootim@kcia.or.kr Tel 02-785-3898)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의견 제출 요청

- ◆ 우리협회에서는 화장품 분야의 기업 현장의 애로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2017년 1월 20일(금)까지 수렴하고 있음.

※ 애로 및 건의사항 작성 양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안내

◆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는 차원에서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을 안내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대행기관은 우리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 혹은 추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를 통하여 우리 협회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일절 없으며, 대행기관과의 실제 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붙임1을 참고하시어 대행기관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중국소재	베이징신금정기술서비스유한공사
	베이징재지시대
	베이징화하미풍 화장품기술센터
	북경매리스
	알란
국내 소재	(주)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주)중국경영인증컨설팅
	정통아이비씨 주식회사
	한국피부과학연구원(주식회사 진셀팜)
	해외인증경영센터
	호경물산주식회사
	SMC 커뮤니케이션

※ 화장품 위생허가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붙임2.「중국 화장품 수입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 소식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한국방문위원회) 코리아그랜드 세일 (Korea Grand Sale) 참여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외래 관광객 유치와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대상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Korea Grand Sale)'이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외국인 대상 '코리아그랜드 세일 (Korea Grand Sale)'
- 기 간 : 2017년 1월 20일(금) ~ 2월 28일(화), 40일간
- 대 상 : 외국인

나. 참여방법

- 참여기업 접수기간 : 2017. 1. 13 (금)
- 모집 및 접수 : 코리아그랜드세일 (www.koreagrandsale.co.kr)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다. 참여혜택

-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참여기업 노출
- 행사 내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 참여
- 행사종료 후 평가를 통한 우수참여기업 포상 등

라. 문의처 : 한국방문위원회 마케팅팀 김현준 과장 (02-6272-7305, hjk@vkc.or.kr)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기업유치 안내

주변인프라

보건의료행정타운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입주
- 생산부터 인증, 허가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교통인프라

국토의 중심에, 오송이 있습니다

KTX오송역 → 서울 45분

- 전국 유일 고속철도 분기역 (경부, 호남)
- 전국 X축 연결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연계)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접근

- 2개의 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영주IC, 5분 이내)
- 충부고속도로(서양IC, 10분 이내)

청주국제공항

- 단지와 20분 거리에 위치
- 37개 도시에 국제선 운항 중인 동북아 핵심공항

평택항

- 70km 내에 위치

인적자원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자원

BT

7개 대학, 900여명

충북대학교 제약학과

IT

13개 대학, 2,200여명

한성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자동차

8개 대학, 800여명

한국교통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가능인력 양성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충북반도체고, 충북에너지고 등 특성화고등학교

안전한 도시

재난재해 없는 첨단업종 최적지

국립한경과학원 평가

지진, 홍수,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

험한 날씨에 가장 안전한 곳은 충북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지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연락처 : 투자유치팀
전화 : 043-220-8374
이메일 : fez101@korea.kr
홈페이지 : <http://www.cbfez.go.kr/site/eco/main.do>

오송 바이오 메디컬 지구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본부, 4개 센터)

시설명	연면적	부처	역할
신약개발지원센터	22,067㎡	미래창조과학부	신약후보물질 평가 및 공동연구개발 등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10,274㎡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설계 및 시제품 제작지원, 개발 등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5,690㎡	보건복지부	임상시험용 시료생산, 기술이전 지원 등
실험동물센터	7,528㎡	보건복지부	동물실험시스템 제공, 실험동물 지원 및 관리 등

오송 바이오 메디컬 지구

» 보건의료 필수 연구지원시설(3개 시설)

국립중앙안체자원은행

- 연면적 : 12,301㎡
- 준공일 : 2012.4월
- 역할 : 국가단위 안체자원 총괄 및 백신개발

국립과학식센터

- 연면적 : 6,669㎡
- 준공일 : 2013.12월
- 역할 : 신종·변종 병원체 진단 및 백신개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 연면적 : 9,900㎡
- 준공일 : 2016.10월
- 역할 : 고품질 줄기세포 수집·보관

◦ 강원도 기업유치 관련 안내

강원도에서는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의 기업을 강원도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강원도내로 이전하거나 분공장을 설치할 경우 저렴한 부지 및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궁금하신 회사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강원도 기업유치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Tel : 033)249-2856

Fax : 033)249-4101

<http://provin.gangwon.kr>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추후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에 협회 회원사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행사나 구인, 신제품에 대한 홍보 등 코스메틱리포트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연락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진행된 행사 및 진행 예정 행사, 신제품 소개, 구인 등
- 자료제출 및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 (02-785-7985, jacklbs@kcia.or.kr)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